



WHEN THE MOUNTAINS TURN BLUE
YOUR BEER IS COLD AND READY FOR KICKOFF.



***COLD
AND
REFRESHING!***

THIS NFL SEASON,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21
MEANS 21®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목 차

Officers

President

Yong Wong Han
Delaware

Vice-President

Chang Hee Lee
Philadelphia

Vice-President

Yoon Hyang Bae
Los Angeles

Vice-President

Se ki kim
Chicago

Vice-President

Gary Cha
Washington DC

Vice-President

Philip Kim
Canada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 Chu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6. 회장 인사말

7. 이사장 인사말

8.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축하

9. 포토 갤러리

15. 각 지역 협회소식

26. 업계소식

30. 경제뉴스

33. 건강뉴스

3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Board of Directors

Chairman

Sung chil Heo
N.Y. N.Y.

Vice-Chairman

Yong Woong Han
Harrisburg

Vice-Chairman

Calvin Choi
Arizona

Vice-Chairman

Chong han Bok
UKBA
Canada

Vice-Chairman

Ki Hwan Na
Georgia

Auditors

Jin Sup Hong
Washington DC
Seung Soo Lee
Philadelphia, PA

CONTENTS

Board Members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U.K.B.A Canada

6. President s Message
7. Chairmans Message
8. Chairmans Message
9. KAGRO Photo Gallery
15. KAGRO News
16. Chapter News
26. Industrial News
30. BUSINESS News
33. Health News
38. Board Members & Sponsors

Editorial Staff

Publisher
Yong Wong Han

Editor
Justin Lee

Journal Advisor
Justin Lee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회장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한 용 응 회장

존경하는 식품인 여러분 그리고 재외 동포 여러분!

지난 41차 총회에서 11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총연의 발전과 지구촌 한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습니다.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하루하루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탓인지 그 긴 세월이 바로 어제일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와 뜻을 함께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준 총연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세월 동안 11대 집행부에 깊은 신뢰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3만5천여 회원 여러분들과 가족 등 20만 식품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월 44차 총회에서 12대 총연 회장으로 그 동안 총연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뉴욕 챕터의 허성칠 회장님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허성칠 이사장님을 차기 회장으로 지지했으며 허 이사장님은 “총연과 지구촌 한인 경제를 위해 몸바쳐 온 11대 집행부의 열정과 사명감을 이어받아 분골쇄신하겠다”고 소감을 발표해서 저와 대의원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11대 회장 당선 이후 오늘까지 한인 경제에 관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설명하고 경청했으며 지구촌 어디에서 열린건 가리지 않고 달려가 참석했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1대 집행부에서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12대 집행부에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11대 집행부에 보여 주었던 성원과 참여를 12대 집행부에 더 많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무릇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그 모임체는 모래알이 되고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혼이 없으면 그 모임체는 발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총연은 직책을 맡은 임원들과 대의원들이 모두 열정과 혼이 가득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총연은 새 회장이 선출되면 전현직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모우고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맥을 이어가며 발전을 거듭하는 전통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의 성원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한용응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허 성 칠 이사장

KAGRO International 고문님, 챕터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을 한분, 한분 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차기 총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갖는 동시에 그래도 총연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라고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총연은 물론, 각 지역 챕터들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무거운 짐을 맡았지만 여러분, 한분 한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으며, 현재 북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를 이름에 걸맞는 전세계적인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12대 총연 회장 임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총연 내부의 결속을 굳건히 하며,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창출한다면 우리 총연합회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인식품주류상들의 불황타개를 위한 문제해결과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공동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작게는 본인 스스로 나아가서는 우리 한민족과 우리 한인식품주류상 회원 모두가 동참하여 서로 단결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꿈과 희망과 성취를 위해서 그 어느 타민족 보다 열심히고 근면한 우리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믿음으로 양보하는 단체로 거듭나는 KAGRO International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제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제12대 회장 당선자 허성칠 배상

이사장 인사말 축하

Greeting of Chairmans



권영건 이사장

【제44차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총회】

존경하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여러분,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제44차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총회를 준비해오신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한용웅 회장님과 허성철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국가 간 장벽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글로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진 우수한 민족성을 살려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함께 짜나간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재단은 700만 재외동포가 사이버공간에서 하나되는 “사이버한민족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Global Korean network 구축사업은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물·단체 DB를 구축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세계한상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한상넷(www.hansang.net)은 한상과 국내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은 물론, 유용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민족 장터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는 1989년 발족한 이래 회원수 3만5천명, 연매출 200억달러의 미주 최대 직능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22년간 여러분들은 다인종을 구성원으로 각 커뮤니티들의 대중적인 다양한 제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 수입 및 수출의 기회와 시장 조사,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둬 한상네트워크 구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동포 기업인들의 교류와 비즈니스를 위해 오는 11월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한상대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영건

KAGRO Photo Gallery

제44차 국제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총회사진

장소:Punta Cana,Dominican Republic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의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가
내달 6월5일(일) 오후 1시 파사디나 소재 컴퍼스 포인트 골프장에서 열렸다.
이날 국제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한용웅 총연 회장을 비롯하여.워싱턴 D.C,식품협회/헤리스버그
식품협회/ 델라웨어 식품협회/필라델피아 식품협회/ 리치몬드 식품협회에서 참가 했다.



헤리스버그 식품협회골프대회



CHAPTER NEWS

볼티모어 한인 식품협회

❖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이광서)가 5일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미주체전 농구팀 모금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인 2세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따뜻한 사랑이 골프로 모아졌다.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이광서)가 5일 글렌버니 파사데나 소재 콤파스 포인트 골프코스에서 개최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182명.

144명 정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골퍼들이 몰리면서 올 들어 워싱턴 일원에서 개최한 골프대회 중 가장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캐그로 회원을 비롯 한인 단체, 식품 및 주류업체 관계자, 시 경찰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일반조에서는 박성언씨, 시니어 조에서는 조영래씨, 여성조는 장정란씨가 각각 1등을 차지했다.

골프대회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골프장 한 켠에서는 무료 혈당 검사(코리안리소스 센터)가 펼쳐졌으며, 파3 콘테스트 한 홀은 미주체전에 참가할 메릴랜드 농구선수단을 위한 기금모금으로 진행됐다. 식품주류협회는 이날 경찰관 자격으로 참가한 볼티모어시 동부경찰서 단 헬스 경관에게 특별감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일반조: 1등 박성언 74타, 2등 정도는 3등 김병대 ▷시니어: 1등 조영래 2등 유덕희 3등 최병권 ▷여자 1등 장정란 2등 써니 윤 3등 오영숙 ▷근접상: 최유민, 김재만

❖ 트랜스지방 사용 주의

볼티모어시에서 트랜스지방 사용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확대되고 있어 요식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회원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2009년 9월 발효한 이 법규는 서빙 당 트랜스지방을 0.5그램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정보다 높은 마가린이나 버터, 마카로니 치즈 등을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시위생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1회는 주의조치하나 2회부터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랜스 지방 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baltimorehealth.org/transfa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워싱턴 D/C 식품협회

❖ “한인상인 권익옹호에 최선”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 어윤한 신임회장 취임식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는 지난 17일 신구회장 이 취임식 및 이사회를 갖고, 임원 발표와 함께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메릴랜드 벨츠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지난달 13일 열린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어윤한씨(58)는 차명학 전 회장으로 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았다.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 어 신임회장은 “협회 발전과 한인 상인들의 권익 옹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한인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한편 더 많은 한인상

인들이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 장학금 시상식을 비롯 불우이웃 또는 독거노인 돕기 골프대회,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블랙 파티 등 주요 사업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수석 부회장 등 신임 임원들이 소개됐다.

수석 부회장에는 조희환, 부회장 이요섭, 앤디 민, 김형묵, 사무총장 존 유, 사무차장 재 은, 회계 유석구씨 등이 새로운 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의 (301)518-0465 어윤희 회장

❖ “DC 세금인상 반대”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 서명운동 전개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어윤희)가 워싱턴 DC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 인상 및 리커 스토어 영업시간 연장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 월마트 반대운동에도 힘을 보탠다.

캐그로 어윤희 회장은 “DC 정부는 세금 인상 및 현재 6일로 되어 있는 리커 스토어 영업시간을 일요일까지 연장하려 한다”며 “영업시간 연장시 스페셜 면허를 받아야 하고 또 비용도 추가로 든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한인업주 대부분은 주 7일 영업을 원하지 않지만 이를 찬성하는 비한인업주들도 많아 서명 운동을 통해 반대의 뜻을 DC 시의회에 전하려 한다”며 “주류 면허를 가진 한인업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월마트의 DC 진출 저지 운동과 관련해 어 회장은 “월마트는 최근 막대한 자금을 들여 4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직접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월마트의 이 같은 공세에 맞서 반월마트 단체들은 배너 및 티셔츠를 제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들 단체들은 배너 및 티셔츠 제작비 마련을 위해 협회에 기금 후원을 요청해 온 만큼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알코올 도수 14% 넘는 와인 판매 집중 단속

워싱턴DC의 주류단속반(ABC 보드)이 최근 알코올 도수가

규정 이상으로 높은 와인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돼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에 따르면 지난해 DC 주류 단속반이 알코올 도수가 14%를 넘는 와인을 판매하던 업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 한인업주를 포함해 다수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주류협 차명학 고문은 “현재 DC 규정상 알코올 도수가 14% 이하인 와인만 판매 가능하지만 요즘 판매되는 캘리포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되는 고급와인의 95% 이상이 14%를 넘는 실정”이라면서 “갑작스런 단속 소식을 듣고 매장에서 급하게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차 고문은 “DC의 현 규정은 60~7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요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며 “주류단속반이 현 규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서면 세이프 웨이, 자이언트 등 슈퍼마켓은 물론 대부분 와인 판매업소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시의원들과 접촉 중”이라며 “적발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한인 업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고문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22%,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18%,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15.5%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와인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일회용 봉지에 세금 부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일회용 봉지에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3일 통과시켰다. 카운티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시행된 법을 따라 만들어진 이 법은 대부분의 가게에서 고객에게 나눠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및 종이봉지 모두 해당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카운티 당국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100만 달러의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주 한미 식품상 협회총회

❖ 증가주 KAGRO 주최 기금마련 골프대회 성황

증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 회장 김희준)가 증가주지역 고교생들의 장학 기금 마련 및 지역사회구호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화) 오전 11시부터 시사이드 소재 베요넷 앤 블랫호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후원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협회 회원 및 지역 단체, 북가주 지역 한인단체와 골퍼들이 참석,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장학기금과 사회구호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탰다.

대회 후 열린 시상식에서 한찬우 대회장은 "행사에 참가해준 멤버들과 각 단체들, 후원업체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대회장은 이어 "협회가 창립되고 20여 년을 지나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전직 지대현, 이응찬, 곽철영, 김희건 회장과 현 김희준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협회를 위해 열정을 다한 전, 현직 회장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박수를 유도했다.

조지 카우치 버드와이저 사장은 "아름다운 날씨와 아름다운 장소에서 장학금 후원이라는 훌륭한 행사를 개최한 협회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갑다"고 말했다.

골프대회 참석자들은 "중가주식품상협회가 펼치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좋은 골프장에서 즐겁게 골프를 치는 시간을 가져서 그 또한 좋았다"고 말했다.

시상식과 래플 추첨시간에는 지대현 이사장의 재치 있는 입담과 진행으로 각 후원업체와 단체가 기증한 푸짐한 경품을 시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품으로 준비된 상품 중 일부는 향후에 진행될 몬트레이 한국학교 기금마련 골프대회에 후원을 하는 등 훈훈한 온정을 나누기도 했다.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중가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몬트레이 한국학교 후원, 홈리스 돕기 등 중가주 지역 사회봉사단체 후원에 사용된다.

갤러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골프대회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존 브라스 ▲챔피언 이윤우 ▲1등 김영자 ▲2등 김상복 ▲3등 존 탁 ▲근접: 남자 글렌 에리 여자 지순오 ▲장타: 남자 이춘구 여자 진성길

북가주 한미 식품상 협회총회

❖ 북가주 식품위생 교육 시행

오는 7월 식품취급자격증 시행 앞두고

매니저 5년마다 종업원 3년마다 재교육

고객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여름철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교육이 북가주지역에서 실시됐다.

지난 21일과 23일 오클랜드 데이스 인(Days Inn)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한성갈비에서 각각 실시된 이번 위생교육은 Premier Food Safety의 유병환 대표(식품과학, 미생물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진행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오는 7월1일부터 가주지역 요식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관계자들과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식품 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이 의무화되기에 필히 한번씩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23일 한성갈비에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20여명의 요식업소 주인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이 끝난 후 시험을 치른 후 수료증을 받았다.

유 대표는 교육에 앞서 "매년 식품으로 인해 미국 사람 중 7천6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아 고객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식품 원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매니저와 종업원들은 손 잘 씻고 음식 온도를 존중하면 박테리아 감염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찬 음식은 41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13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일단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1월1일부터 카운티별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규정들에 대한 지침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문항의 70%이상을 맞춰야만 하며, 지난 2007년부터 업주나 매니저의 경우 5년에 한번씩 교육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종업원의 경우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관계자들과 모든 종업원들에게 식품취

급자카드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북가주지역에서 한국어 위생교육이 지난 21일과 23일 실시됐다. 사진은 한성갈비에서 실시된 위생교육에서 유병환 대표가 위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 필라시 소다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

필라델피아 시가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소다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어 업계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가 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는 지난 주부터 필라시에서 주최한 소다세 신설을 위한 공청회에 우완동 회장과 임희철 이사장이 참석해 새로운 세금 신설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TV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같은 뜻을 거듭 강조했다.

우완동 회장은 임희철 이사장과 함께 14일 열리는 소다세 신설 반대 시위에 참여해 다시 한 번 소다세 신설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예정이다.

소다는 지난 해에 마이클 너터 시장이 필라델피아 시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던 부분이지만 시정부가 올해 재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필라시의 세수가 절대 부족한 반면 소다세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세금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 회기 중에는 시 의회도 시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돼 일선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올 해 필라시가 제출한 소다세 신설안은 온스 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20온스 음료수 한 케이스(24병) 당 9달러60센트의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고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져 일선 업소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소다세 신설 반대 운동은 코카콜라사 동부지역(매니저 커티스)이 앞장서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와 도미니칸 식품인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하고 있다.

우완동 회장은 공청회를 통해 “시에서 소다세를 신설하면 공장에서 출고가격이 오르고 도매 가격이 오르며 결국 소매 가격도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전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다 가격이 오르면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필라델피아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임희철 이사장은 “소다세가 신설되면 현재 20온스 한 병에 1달러50센트 정도인 가격이 2달러 선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며 가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해 스몰 비즈니스의 존립에 더욱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카고 식품협회

❖ 여름철 식품위생 검열 강화

시카고시 위생국, 최근 한인업소 2곳 검열

더운 날씨로 식중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여름철이 되면서 당국의 식품위생 검열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카고시 공중보건국은 여름철을 맞아 식당 및 식품업체들에 대한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랜 불황으로 보건국 직원들도 감원되면서 검열을 나오는 횟수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한번 나올 경우 그 심사의 강도는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한인 식당 및 식품업체 2곳이 검열을 받았는데 위생상태가 좋아 별다른 지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요식업체들이 검열을 받을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상당수 검열관들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요식업협회 이명재 부회장은 “특히 김밥이라든지, 간pong, 잡채 등 한인업소 중에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사항이 자주 적발된다. 검열관들이 만일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해 미리 인지를 했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카고는 다문화 도시라는 점에서 검열관들도 여러 국가들의 음식문화에 대해 지식을 쌓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아 한인업주들이 고충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검열관들의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티켓 1장 받을 것이 2장, 3장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이 있더라도 정중하게 질문을 해야지 언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생검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온도를 일리노이주 기준인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한 달에 한 번씩 페스트 콘트롤(해충구제)을 실시할 것 ▲죽은 바퀴벌레, 쥐의 배설물 등이 방치돼 있진 않은지 늘 확인할 것 ▲미리 준비해 놓는 반찬의 양을 줄일 것 ▲그릇 또는 식기 등을 반드시 일정 높이 이상 되는 위치에서 보관할 것 ▲화장실 세면대 온수와 냉수가 구분돼 나오는지 확인할 것 ▲‘종업원은 손을 씻어야 한다’는 표지를 붙여 놓을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뉴욕 식품협회

❖ 美뉴욕서 한인 식료품점 사라진다

미국 뉴욕시에서 과일과 야채 등을 판매하는 식료품 상점 중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한인 소유 점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자녀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한인 부모들의 희망과 치솟는 점포 임대료, 온라인 점포나 기업형 점포들과의 경쟁, 뉴욕시 위생 당국의 엄격한 단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수 십년간 뉴욕의 식료품점은 한인 이민자들이 대부분을 차지, 성공한 한인 이민자들이 소유한 사업으로 인식돼왔다.

한인생산협회(KPA)에 따르면 뉴욕 식료품 상점 중 70%가량을 한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아직도 한인들은 뉴욕시의 식료품 상점 중 절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점포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 한인 소유 식료품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동부지역의 한인 이민사회를 연구해온 뉴욕 퀸스 칼리지의 민병갑 교수에 따르면 1995년 2천500여개에 달했던 한인 소유 식료품점은 2005년 2천개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민 교수는 미국으로 이민가는 한인 수가 1988년 3만1천

600명에서 작년 4천600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들은 네일 살롱이나 세탁소 같은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종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이민 2세대 한 주(42)씨는 점포를 닫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이 식료품점 덕분에 중산층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임대료를 겨우 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씨는 10대의 두 아들이 이 점포를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면 집사람은 평생 과일 가게에서 일하고 싶냐?"며 야단을 친다"고 전했다.

브루클린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맹은숙(52) 씨는 "많은 사람이 점포를 닫았다. 모두가 떠나고 있다"면서 점포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러싱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식 씨는 "앞으로 10년 내에 한인 소유의 점포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타주서 들여와 상점 등에 공급, 한인등 12명 적발

한국 등 해외나 타주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들여와 뉴욕일원에 유통, 판매해온 개인 및 전문 일당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퀸즈검찰청은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우체국(USPS), 뉴욕주세무국 등과 3개월간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담배 밀수 및 유통 혐의로 한인 남성을 비롯한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의 증거품으로 약 4,000보루의 담배와 시가 2만2,000개, 40만 달러 상당의 현금 및 물품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담배유통 업자들은 해외에서 불법 제조된 가짜담배 또는 면세담배나 뉴욕보다 담배값이 싼 타주 담배를 대량으로 밀수입해와 일반상점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들은 JFK공항 입국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여행가방 등을 이용해 대량의 외국산 면세 담배를 숨겨 들여오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뉴욕시 담배가격이 치솟자 돈

을 아끼기 위해 국제우편을 통해 외국산 담배를 주문 구입하던 한인 남성을 비롯한 중국계 남성 2명도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67) 모씨는 한국산 면세담배 30보루를 국제우편으로 주문, 구입하던 도 중 지난달 24일 공향우체국 조사관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됐다. 이 씨는 더구나 담배 수령인의 이름이 자신과 달라, 'E급 중범죄인 비즈니스기록 위조'와 'A급 경범죄인 불법담배 소지' 등의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다.

❖ 공공장소 흡연도 안돼... 표결처리 5개월이상 소요

뉴욕시가 미성년자에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동시 추진한다.

피터 밸론 주니어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부추길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취지도 담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에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첫 적발시 벌금 500달러, 첫 적발로부터 2년 이내 추가 적발시 벌금 1,00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 2,000달러와 함께 담배 판매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시민들에게도 첫 적발시 200~400달러, 이후 1년 이내 추가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1,000~2,000달러의 높은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밸론 주니어 시의원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바닐라나 딸기 향내를 풍기는 전자담배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이른 나이에 흡연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현재 시의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표결 처리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법제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 “비닐백 사용하면 1,000달러 벌금

앞으로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빌리지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

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4일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우스햄튼 빌리지 타운정부는 업소에서 물건을 담아 줄때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 백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만장일치로 전격 승인했다.

법안은 소매점에서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4일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친환경성 플라스틱 백이나 야채나 과일을 담은 플라스틱 백(produce bag)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법안은 이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백 사용자도 늘었는데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를 법으로까지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 위생검열 대비하자” 업주들 긴장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식당과 델리, 마트를 비롯한 한인 업소들이 뉴욕시의 위생 검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위생등급표시제 실시 이후 한층 강화된 검열 규정으로 인해 한바탕 곤혹을 치렀던 업소 관계자들은 올해 위생 등급 유지, 향상에 필요한 각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달 들어 기온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벌레와 해충을 없애기 위한 방역작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한차례 등급보류(펜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A등급을 받은 플러싱의 한 식당 업주는 “요즘은 5분 대기조”라는 표현으로 검열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업주는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언제 들어올 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한번 펜딩을 한 업소는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등급을 받았던 맨하탄 42가의 한 델리 업주는 “요새 애비뉴 선상 업소는 1년에 1만달러, 스트리트 선상은 5,000달러 벌금이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벌금 물리기에 혈안이 된 뉴욕시가 여름이 되면 분명히 검열에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BCD 북창동순두부도 최근 뉴욕, 뉴저지점 매니저들이 모두

모여 위생 관련 대비사항을 총점검했다. 이한민 BCD 본부장은 “그때그때 지적 사항을 보충하는 식의 준비로는 포괄적으로 바뀐 위생 검열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에 장기적인 점검 스케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업체들도 부쩍 많아진 주문에 바빠졌다. 최고 기온이 70도 이상 오르면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해충과 쥐의 출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파리도 올해는 한 마리당 벌점 2점이 부과된다는 소문에 업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광소독의 한 관계자는 “한 달에 한번 점검 받던 업소가 두 차례 이상 늘리고 예전에는 넘어가던 부분도 전화를 해 다시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타운번영회는 한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정하지 않은 기준 등 식당위생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사항을 모아 최근 뉴욕시에 전달하는 등 올해도 위생검열을 둘러싼 업소들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커피때문에 속 끓는다

델리,제과업주들 도매값

30~40% 인상 불구 소매값 올릴수 없어

커피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인 델리 및 제과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제 커피 원두가격이 뛰기 시작했지만 한인 업소들은 불경기에 고객이 떨어져 나갈까 소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맨하탄 40가의 '피로가' 델리의 정인찬 사장은 "커피 한잔에 1달러, 1달러40센트를 받고 있는데 이는 3년전 가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커피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40% 인상됐지만 소매업체의 가격 인상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뉴욕국제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커피 원두 가격이 심리적 지지선인 3달러 선을 돌파하고 34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커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한인식품협회 이종식 회장은 "(델리에서) 커피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어서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도매가격이 계속 오르면 소매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인 제과점도 커피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플러싱 원제과점은 최근 커피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 원제과점측은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한달전 커피 가격을 10센트 올려 현재 1달러35센트에 판매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름철 인기 품목인 아이스크림 가격은 인상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들은 이마저도 커피 가격을 올리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빵굽터는 커피 가격이 3년 전과 동일한 1달러50센트다. 파리바게뜨도 커피 가격이 1달러50센트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원두가격인상이 계속된다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과점마다 커피 가격을 선불리 올렸다가 제과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는 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스타벅스는 지난 3월 가정용 포장 커피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크래프트푸드' 사도 '맥스 웰하우스'와 '유반'을 각각 22% 인상했다. 한국의 동서 식품도 맥심 커피믹스 출고가를 2년만에 10% 가까이 올려 연내로 한인마트에서의 소매판매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LA 미주 한미식품상 총연합회

❖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연합회(회장 허종.KAGRO 캘리포니아)의 정기총회가 19일 오대산에서 개최했다.

총회에는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지난 1분기 회계 보고 및 6월14일 열릴 예정인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성훈 전 회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회원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올해부터 발급되는 미성년자 신분증은 성인용과 달리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져 구분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에서는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기 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워킹 쿨러 내에 부착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80%의 전기로 절약이 가능하다.

이지니 사무장은 "지난 달 한 회원이 전기 절약 프로그램 리

베이트를 이용해 3000달러가 필요한 LED등 교체 비용중 650 달러만 부담했다"며 "주정부 전기 절약 프로그램은 신청자 우선 순위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전기 절약 프로그램은 ▶신청서 작성 ▶주정부 심사 ▶주정부 관계자 업소 방문.예산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문의:(323)731-8900

❖ 한미식품상협회 기금 골프대회 열려 1만5천달러 모금

오렌지카운티에서 마켓과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골프대회를 통해서 우호를 다지고 우수한 한인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1만5,000여달러의 장학기금을 모았다.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제임스 임)는 지난 26일 라하브라 소재 웨스트리지 골프코스에서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례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해 1만5,000여달러를 모금했다.

한미식품상협회의 제임스 임 회장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장학기금도 모우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도 다졌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골프대회 때마다 매년 후원을 해주고 있는 여러 미 주류 기업들과 한인 업체들에 감사드린다"며 "이 기금은 자라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꿈을 실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식품상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마련한 장학금을 연말 송년파티에서 장학생으로 뽑힌 한인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한인 장학생 13명을 선정해 한 사람당 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모금 골프대회에는 LA 동부식품상협회 황승룡 회장, 내셔널 KAGRO 차윤성 전 회장,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김성수 이사장, 헨리 김 전 KAGRO 회장 등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입상자는 ▲메달리스트-강준희 ▲챔피언-이재성(남), 조 영(여) ▲장타상-이용환(남), 주희옥(여) ▲근접상-헨리 김(남), 수잔 차(여)씨 등이 각각 차지했다.

❖ 불법담배 타운서 버젓이 유통

전문사이트 수십곳...

한국 등서 반입해 정가보다 2~4배 낮게 판매

최근 한국·중국 등 해외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반입해 뉴욕 지역에 판매해 온 한인 담배 밀반입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LA 지역에서도 불법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담뱃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국 등 타 지역산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공급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담배는 갑당 6~8달러에 달하는 LA 담배보다 2~4배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담배 유통은 신문·잡지 광고나 커뮤니티 웹사이트 등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LA 등 미국으로 담배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주별로 세관의 관세부과를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수입할 수 있는 담배 숫자는 200개비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즉 한 보루 이상을 구입해 불법 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배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담뱃값이 너무 올라 주기적으로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만 최근 3회에 걸쳐 인터넷 업체가 없어지고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돈만 결제하고 물건은 전달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법담배를 전화만 걸면 직접 배달해 주는 곳도 있으며 일반 마켓, 리커는 물론 타운 내 카페나 주점 등 유흥업소를 통해 가짜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타운 인근에서 마켓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담배를 원가 수준으로 박리다매 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는데, 가끔 가짜담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어 불법인 줄 알지만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운 내 한 유흥업소 관계자도 "단골 고객들에게 담배를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들이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 스티커를 모으기도 한다"며 "타운에서 불법담

배를 확보해 판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법담배를 유통할 경우 엄청난 벌금형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담배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캇 이씨는 “불법담배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수사당국이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담배 스티커의 위조를 검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소매업소들은 주정부는 물론 시정부의 담배 판매 라이선스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캘리포니아 주 식당 종사자에 자격시험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요식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과 업소 관계자들이 ‘식품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타운 식당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주방 근무자들은 물론 웨이트리스 등 단순 음식서빙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까지 교육과정 이수과 시험 응시가 요구되고 있어 많은 한인 식당 종업원들이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제공되는지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일단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1월1일부터 카운티별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일부 규정들에 대한 지침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번 제도에 대해 LA 카운티 보건국이 현재까지 밝힌 시행 방침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식품취급자 카드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취득해야 하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 대상은 요식업소 업주와 매니저, 종업원, 배달원 등 음식을 다루거나 만지는 모든 관계자들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존에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미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지역의 요식업 관계자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자격증이나 카드를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카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교 및 병원 카페테리아나 편의점 등 일부 업소는 카드 취

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트타임 종업원도 카드를 취득해야 하나.

▲그렇다. 나이와 경력에 관계 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카드를 반드시 취득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시험은 어떻게 볼 수 있나.

▲현재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 함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험 응시료는 온라인에서는 15달러 이상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문항의 70%이상을 맞춰야만 하며,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시험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웹사이트(www.nrfsp.com, www.foodhandlerusa.com, www.prometric/foodsafety)를 참조하면 된다.

-카드 취득 관련 교육자료나 시험지가 한국어로 제공되나.

▲현재 식품 취급자 카드에 관한 교육자료나 시험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된다. 하지만 LA 한인요식업협회나 가주 공인식품위생관리사 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자료나 시험지 번역을 준비중에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

▲아직 주정부에서 단속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하지만 카운티 보건국 별로 오는 7월1일부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 종업원 교육

식품취급자카드 시행 앞두고

오늘, 23일 OAK와 산타클라라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요식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과 업소 관계자들이 ‘식품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베이지역에서 한국어 식품위생 종업원 교육 강연이 열린다.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열리며 유병환 식품가공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오늘(21일) 오클랜드 데이스 인(Days Inn)과 23일(월) 산타클라라 한성갈비에서 각각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일단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1월1일부터 카운티별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규정들에 대한 지침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문항의 70%이상을 맞춰야만 하며,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교육 등록비는 120달러이며, 등록은 전화로 가능하다.

▲장소: Days Inn(8350 Edes Ave, Oakland), 한성갈비 (2644 El Camino Real, Santa Clara)

▲문의: (800)676-3121

❖ 식품취급자 카드' 대형 체인 제외 형평성 논란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식당 종업원들에게 '식품취급자 카드' (Food Handler Card)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한인 요식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주 의회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시행법을 마련하고 청문회를 통해 법 내용을 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SB602)을 발의한 알렉스 파디아 주 상원의원은 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월에 보완 시행법에 해당하는 SB303을 추가로 발의했고, 단속 시점을 오는 7월 법의 발효시점이 아닌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다.

주 의회는 오는 5월10일 보건관계 기관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열어 새로운 법이 기존의 식품 위생법과 상충하거나 불필요한 이중 단속의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 법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식당업계는 법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시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식품취급자 카드 의무화법은 자체 교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체인 레스토랑 종업원들을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노조가 있는 공방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병원, 학교 식당, 놀이공원 등 대규모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요식업계 종사자 140만명 가운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빼면 전체 식당 종사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40만~50만명이 식품 취급자 카드를 취득해야 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규모 식당 업자들은 "법의 내용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대규모 식당들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결국 작은 식당들만 규제의 불편을 겪게 됐다"며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식품취급자 카드에 대한 교육을 대행한다는 무허가 업체들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하며 식당 업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주정부는 3개의 웹사이트(www.nrfsp.com, www.foodhandlerusa.com, www.prometric/foodsafety)에서 공인된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리치몬드 한미식품상 총연합회

❖ 리치몬드 식품협회 새 회장에 이시경씨

이시경 씨(54)가 24대 리치몬드 한인식품협회 회장에 선출됐다.

식품협회(회장 김윤옥)는 지난 15일 영빈관에서 총회를 열고 현 이사장인 이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6월 1일부터 2년간.

이 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협회를 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대와 21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회장을 역임했었다.

이 회장은 87년부터 리치몬드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레시 푸드 슈퍼마켓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총회는 회장 인사, 정귀현 부회장의 경과보고, 한영희 재무의 재정보고, 감사보고, 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식품협회는 매년 설 잔치 및 장학금 기증식을 통해 지역주민과 회원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는 현재 120여개 한인 업소가 있다.



쌀은 산소다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와 함께 하는
쌀은 산소다 Rice O₂ 캠페인

[아침밥을 먹으면 386g의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Industry News

Debit Card Swipe Fee Rule Coming Next Week

The Federal Reserve will meet on June 29 to announce its final rule on debit card swipe fees.

WASHINGTON ? On Wednesday, June 29, the Federal Reserve will announce its final rule on debit card swipe fees.

On December 16, 2010, the Federal Reserve issued a proposed rule, as directed by Congress in the financial services reform bill, that sought to ensure that debit card swipe fees are reasonable and proportional to the processing costs incurred. The Federal Reserve never intended to eliminate debit card swipe fees, but to define a rate that was fair and equitable, with per-transaction rates of 7 cents or 12 cents.

The Federal Reserve also asked for public comments to proposed rule, originally set to be finalized by April 21 and implemented by July 21. However, in March,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Bernanke said that the Fed would complete final swipe fee reform regulations in time for retailers to begin offering customers discounts and other benefits this summer as scheduled, but would hit the originally proposed April 21 deadline.

Thanks to NACS members and their grassroots efforts, our industry defeated an attempt in the U.S. Senate on June 8 to delay the debit card swipe fee rules. Be sure to read NACS Daily next week for full coverage of the Federal Reserve's final rules.

FDA Announces Graphic Cigarette Health Messages

The warnings consist of nine new textual warning statements accompanied by gruesome color graphics depicting th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WASHINGTON ? This morning FDA announced the nine graphic cigarette health warnings required to appear on every pack of cigarettes, cartons and cigarette advertisement no later than September 2012.

Once implemented, all cigarettes manufactured for sale or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need to include the new graphic health warnings on their packages. Each warning is also to be accompanied by the phone number 1-800-QUIT-NOW. The FDA says that these warnings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public health impact by decreasing the

number of smokers."

NACS Daily reported last week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Tobacco Control Act) requires that cigarette packages and advertisements have larger and more visible graphic health warnings. These new required warnings consist of nine new textual warning statements accompanied by color graphics depicting th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This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o cigarette labels in more than a quarter century and will affect everything from packaging to advertising. The labels combine graphic imagery with straightforward facts to make the message clear: smoking can kill you.

A Healthier Krispy Kreme?

WINSTON-SALEM, N.C. ? Krispy Kreme Doughnuts is expanding its menu but not with new flavors of doughnuts. Instead, the chain is adding coffee and healthful options in an effort to bring in more revenue, Bloomberg Businessweek reports.

Since its debut in 1937, Krispy Kreme Doughnuts has built its reputation on the classic glazed doughnut. But CEO James Morgan has plans to put fruit juice, oatmeal and yogurt on the menu alongside the chain's doughnuts.

The chain fell on hard times with the rise of the Atkins diet and too much expansion too quickly, but has lately begun to climb out the hole. To capitalize on that, Morgan wants to expand into specialty coffee and healthier fare. "We weren't getting a lot of verbal complaints," said Morgan. "But we also were

not getting the sales we thought we should."

Since Morgan took the helm in 2008, he's been working to turn around the sales by redesigning the chain's retail locations into smaller, neighborhood stores instead of factory stores. Also, the chain jacked up expansion in overseas markets.

But in order to compete against Starbucks and Dunkin' Donuts, Krispy Kreme needs to increase sales. Morgan thinks coffee will be a big help in that regard, rolling out signature coffee starting in September. The chain will add espressos and lattes to the mix during the next 18 months.

The doughnut chain wants to increase sales with coffee and more healthful fare.

Starbucks Adds Beer, Wine to Locations

Starbucks is set to debut its first suburban coffeeshop serving beer and wine in Washington state.

ISSAQUAH, WA ? Building on the success of a Seattle location that recently began offering beer and wine, Starbucks announced plans last week to open its first alcohol-friendly suburban store in Issaquah.

The project is a renovation of an existing store and is should be complete in late September. In addition to serving alcohol, the store will also offer an expanded food menu, including charcuterie and a cheese plate.

The store redesign will include the integration of reclaimed wood, a bar fashioned from salvaged telephone poles, and a metal-and-wood part piece

inspired by the autumn salmon run. It will also include a children's area.

In Seattle, the East Olive Way Starbucks received a high-profile makeover last year and reopened in October. The store offers beer, wine and expanded food offerings.

"It's a very mixed-use store. You've got every type of Starbucks customer there, from students to businesspeople to folks meeting with groups after work," Starbucks spokeswoman Stacey Krum said, referring to the suburban location. "Those are passionate customers and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them what they think."

U.S. Department of Labor Investigates Alleged N.J. Gasoline Station Wage Violations

The agency is conducting a 12-month examination into claims that station attendants receive less than the minimum wage.

HADDONFIELD, N.J. -- The U.S. Labor Department is in the middle of a yearlong investigation into alleged violations of wage and hour laws at New Jersey gasoline stations, the Associated Press reports. New Jersey is one of two states that prohibit customers from pumping their own gasoline.

The agency believes that gasoline attendants are not receiving minimum wage or being paid properly for overtime throughout the state. All 20 northern New Jersey wage-and-hour examiners and some investigators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state are

probing alleged abuses.

"It's one of the worst industries that we have in our state in terms of overall compliance," said Joseph Petrecca, head of the department's northern N.J. Wage and Hour Division. He claims that around three-fifths of gasoline retailers do not pay their employees properly.

Petrecca said examiners have attempted to discover illegal pay practices before but now have implemented surveillance methods to capture wrongdoings. From 2007 to 2010, the Labor Department garnered \$1.2 million in back pay for N.J. gasoline station workers.

The "NINJA" campaign for Noncompliance Initiative for New Jersey Attendants started in October and has gathered more than \$600,000 thus far, said Petrecca.

Sal Risalvato,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Jersey Gasoline C-Store Automotive Association, said the campaign isn't fair to the state's gasoline retailers. "It's not that it's prevalent in gas stations? it's common in any kind of business where the owner does it all and they don't have a payroll department," he said.

Risalvato also pointed out that many times, the employee is salaried, but regulators think they should receive hourly pay instead. "They're making it like business owners are ripping off employees," he said. "They're not. It's not like the employees are complaining about it."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검진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내용	프로그램설명
종합검진	위내시경/위장조영, 상복부초음파, 암표지자간검, 대장암, 해장암, 전립선암, 폐암, 난소암, 심장도, 흉부X-RAY, 일반혈액화학검, 혈당, 신장기능, 전해질, 갑상선, 고지혈증, 간기능, 간염, AIDS, 류마티스인자, 혈압, 청맥, 안과시력, 안압, 안저, 소변, 대변, 체지방검사, 식생활평가,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 자궁경부암 / 유방촬영제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검사까지 포함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
정밀검진	종합검진+갑상선초음파, 자선영향부CT, 골밀도, 폐기능, 유방 / 골반초음파(여), 전립선초음파(남)	종합검진과 함께 각 장기의 초음파검사와 자선영향부CT 검사등을 포함하여 상인병은 물론 흔히 발생하는 암까지 찾아주는 정밀 건강진단 프로그램
암정밀검진 A	종합검진+대장내시경, 흉부CT, 복부 및 골반CT, 갑상선초음파, 초저검사비율 및 1회용검자, 골밀도, 폐기능, 골반 / 유방초음파(여), 전립선초음파(남)	종합검진은 물론 각종 암에 대해 최신 진단기술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세밀한 암 조기진단 프로그램
암정밀검진 B	암정밀검진A+뇌MRI&Angio	종합검진과 각종 암에 대한 최신 진단기술들로 구성된 광범위하고 세밀한 암 조기진단은 물론 중증예상등을 위해 뇌에 대한 침밀신단도 포함된 암 검진프로그램
암정밀검진 C	암정밀검진B+PET-CT(전신) - 2일소요	암의 조기진단 뿐 아니라 아직 암이 형성되지 않은 생화학적 변화상태에서도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암 검진 프로그램
심장정밀검진	심장초음파, 심혈관위험인자, 심장혈관3D-CT	심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목적의 특별 프로그램
치매정밀검진	뇌MRI&Angio&diffusion, 경동맥초음파, 치매조기진단검사	뇌혈관 및 치매, 뇌졸중등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비만정밀검진	복부비만CT, 국소비만도측정, 집중영양교육관리, 영양분석, 심폐운동검사 - 2일소요	체계적인 식습관 분석 및 체형, 체중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알레르기정밀검진	부비동 X-RAY, 알레르기피부반응검사, 알레르기혈액검사	알레르기 원인을 진단하고 내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청소년정밀검진	상복부초음파, 심전도, 일반혈액검사화학검, 신장기능, 전해질, 갑상선, 간기능, 간염, A형간염, 흉부X-RAY, 흉부초음파, 흉부CT, 알레르기혈액검사, 난소암표지자(여)	성장기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경년기정밀검진	남성: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남성호르몬, 스트레스우울검사 여성: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반초음파, 골밀도, 여성호르몬, 스트레스우울검사	경년기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 예방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결혼전정밀검진	남성: 종합검진+호르몬검사, 장액검사, 심혈관위험인자 여성: 종합검진+골반초음파, 호르몬검사, 혈결립상인혈, 풍진검사, 볼거리, 심혈관위험인자	결혼 적령기 상인에게 필요한 검사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
숙박검진	1박2일: 암정밀검진A+숙박, 뇌MRI&Angio&diffusion, 심장초음파, 척추MRI, 심장혈관3D-CT, PET-CT(전신+뇌) 2박3일: 암정밀검진A+숙박, 뇌MRI&Angio&diffusion, 심장초음파, 심폐운동부하검사, 24시간콜터, 척추MRI, 심장혈관3D-CT, PET-CT(전신+뇌)	편안한 휴식과 함께하는 폭넓은 진진건강관리 프로그램

최신식 의료장비 현황



MRI



PET-CT



64슬라이스-MDCT



초음파기



da Vinci(로봇수술)



SPECT



대중교통안내 (인천공항 →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버스 : 6013번 (1층5B, 12A) → 장한평역 하차 → 5호선(전철 환승) → 왕십리역 하차 (도보5분)
 철도 : 인천국제공항 → 2호선 홍대입구역 (환승) → 한양대역 하차 (도보5분)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http://imc.hanyang.ac.kr/>

e-mail : hospital@hmc.hanyang.ac.kr 전화 : +82-2-2290-9550, 9551, 9552 FAX : +82-2-2298-4336

Cellular Phone(24hour/day) : +82-10-6401-9550 Korean +82-10-6402-9550 English +82-10-6403-9550 Chinese

Business News

1970년엔 6만여명 불과... 실제 인구는 243만 추정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14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미 연방센서스국의 '2010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142만37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07만6872명에서 10년간 32.2%(34만5912명) 늘어난 것이다. 미국 거주 한인인 40년 전인 1970년에는 불과 6만9130명에 불과했지만, 매 10년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센서스에 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내 한인 숫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게 정설이다. 외교부가 각 공관이 교회 한인회 등의 통계를 이용해 보고한 것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수는 24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미국 내 소수민족이 의미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활동하려면 최소 100만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인이 200만명을 돌파함으

로써 중요한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미국 거주자의 빠른 증가는 아시아 국가들에 공통된 현상으로 인도계는 지난 10년간 69.6% 늘어난 284만3391명, 중국계는 44.6% 증가한 334만7279명을 기록했고, 필리핀계(38.1%), 베트남계(37.9%)도 거주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주는 캘리포니아로 45만1892명이었고, ▲뉴욕(14만994명) ▲뉴저지(9만3679명) ▲버지니아(7만577명) ▲텍사스(6만7750명) ▲워싱턴(6만2374명) ▲일리노이(6만1469명) ▲조지아(5만2431명) ▲메릴랜드(4만8592명) ▲펜실베이니아(4만505명) 등의 순으로 거주 인구가 많았다. 한인들이 미국 전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도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한 정치력 신장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막걸리' 헛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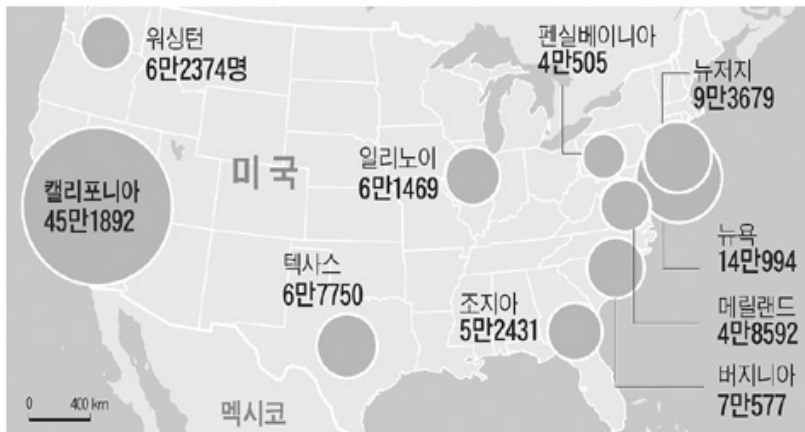
제조사마다 제각각..영문표기 통일 아쉬워

Makgeolli, Makguli, Rice Wine

한국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로 내세우고 있는 막걸리의 영문 명칭과 표기가 상품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막걸리의 세계화'를 외치기에 앞서 영문 철자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한식세계화 공식사이트(www.hansik.org)에서는 막걸리의 영문 철자를 표준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Makgeolli'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에서 막걸리를 유통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총: 142만3784명 (2010년 4월 1일 기준, 단위:명)



자료:미 연방센서스국의 '2010 인구조사'



고 있는 백세주 USA와 이동 USA는 'Makkoli' 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고, 진로 아메리카는 'Makguli' 를 사용하고 있는 등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표기법이 쓰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막걸리의 일본식 발음인 '마코리' (Maccori/ Makkori) 로 표기되고 있으며 위키페디아에는 막걸리가 'Makuly' 또는 'McGully' 로도 표기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생(生)막걸리 제품들의 경우도 'Draft 막걸리' 와 'Saeng 막걸리' 등으로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의 농림수산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해 막걸리의 세계화 마케팅을 돕겠다며 상금을 걸고 '막걸리 영문 애칭 공모전' 을 열어 '드렁큰 라이스' (Drunken Rice), 즉 '술에 취한 쌀' 이라는 이상한 영문 애칭을 선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 폐기하기도 했다.

백세주 USA 최정관 대표는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Makgeolli 는 미국인들이 발음하기에 어려워한다" 며 "일반 미국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때는 막걸리를 Makkoli로 표기하고 Korea Rice Wine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막걸리가 미국 등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하려면 프랑스의 와인(wine)이나 일본의 사케(sake)가 전 세계적으로 명칭과 이미지가 일원화된 것처럼 막걸리도 통일된 이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막걸리를 유통하는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만이라

도 막걸리 영문 철자가 일원화된다면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한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과 논의해 막걸리 영문 표기를 하나로 통일하면 정부 홍보 비용 낭비를 피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굿바이 타자기 1867~2011

인 '세계 최후의 타자기 공장' 수요 없어 문닫아

지구상의 마지막 타자기 공장이 끝내 문을 닫았다. 한때 사무혁명의 대표주자였던 타자기가 이제 컴퓨터에 밀려 박물관 전 시용으로 갈 운명이 된 것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5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자기를 생산하던 인도 뭄바이의 '고드레지 앤드 보이즈' 회사가 주문이 없어 문을 닫게 됐다고 전했다. 이 공장은 1950년대부터 타자기를 생산했다. 당시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자기를 가리켜 인도 공업화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5만 대의 타자기를 판매했다. 최근 10여 년간 컴퓨터에 밀려 주문이 급감했지만 전력난이 심각한 인도 동북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다. 주요 고객은 법원과 정부청사. 2009년만 해도 1만2000대를 팔았지만 지난해 판매대수는 불과 800대. 이제는 가난한 국가에도 타자기가 필요치 않게 된 것이다. 저가 컴퓨터는 타자기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무려 180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타자기의 대당 가격은 100달러가 훌쩍 넘는다. 남아 있는 재고는 대부분 아랍어 타자기로 200여 대에 불과하다.



1867년 미국에서 발명된 타자기는 100년 넘게 사무실의 필수품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에서는 6·25전쟁 이후 경방공업주식회사가 ‘클로버’라는 상표로, 동아정공이 ‘마라톤’이라는 상표로 타자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한국 내 타자기 생산은 1996년에 중단됐다. 타자기를 밀어낸 데스크톱이나 랩톱 등 1세대 컴퓨터 역시 미래는 밝지 못하다. 최근 태블릿PC의 급성장으로 이들도 머지않아 100년 넘게 존속한 타자기의 ‘장수(長壽)’를 부러워해야 할 처지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암 유발” 세계보건기구 경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부 뇌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14개국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RC 실무그룹은 이날 프랑스 리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능한 모든 과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주일 동안 휴대전화나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암의 상관관계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ARC 전문가들이 휴대전화를 인간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2B’로 분류했다. DDT와 개솔린 엔진 배기기가 이 부류에 포함된다.

하지만 IARC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생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내견 입장거부” 황당 공익소송 장애인 “안내문 없어”

한인 편의점 업주 등 인근 20곳 제소 당해

LA와 벨리 등 남가주 일원에서 한인 등 업주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데 이번에는 업소내 애완견 입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인 편의점 업주가 공익소송을 당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그동안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해 온 한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한인 업소 인근 지역의 업주 20여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가디나에서 25년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인 전모(68)씨는 2주 전 LA 수퍼리어 코트로부터 황당한 소장을 받았다. 한 장애인이 지난해 7월31일 개를 데리고 전씨의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마찰을 빚어 소송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

이 장애인은 소장에서 업소 측이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주 전씨는 “전국 체인점인 편의점은 본사에서 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며 “장애인 인도견의 경우 특수표시가 돼 있어 종업원들이 바로 알아보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건물주인 편의점 본사는 소송하지 않고 업주 개인에게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볼 때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샌디에고에 주소지를 둔 M 변호사로 그는 LA카운티 지역에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0건이나 대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해 4월과 9월 한인 식당들의 화장실 시설 미비 등을 들어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 적극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냈던 안영래 법무사는 “업소 출입구에 인도견 또는 애완동물 출입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을 경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가능하긴 하다”며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4,000달러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변호사는 “장애인 인도견이나 의료지원용 애완동물은 일반적으로 식당 등 업소 출입이 허용된다”며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이 의료지원용인지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루베리, 뼈 튼튼히 하는데 도움



블루베리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장수식품이다. 최근 블루베리의 새로운 건강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블루베리가 뼈를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미국 아칸소아동영양센터의 첸 진란 박사팀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전체 먹이 사료 중 10% 정도를 냉동 건조된 블루베리 가루로 구성해 먹인 다음, 골밀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블루베리 가루를 먹은 쥐는 먹지 않은 쥐에 비해 골밀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혈액 내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분석한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한 쥐는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뼈를 생성하는 세포의 발달이 높았다.

연구진은 블루베리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폴리페놀은 블루베리의 푸른 빛을 내는 성분이다.

첸 박사는 “이 연구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경우, 블루베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루베리는 이 외에도 다양한 건강효과가 있다. 블루베리의 껍질과 씨에는 과일 중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다. 이는 암과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100g 당 식물성 섬유를 3.3g 함유해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고대구로병원 이은희 영양사는 “또한 블루베리는 콜레스테롤 저하와 눈의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며 “하루 20~30알 정도로 3개월 이상 먹는 것을 추천 한다”고 말했다.





노화엔 코엔자임 Q10

대사증후군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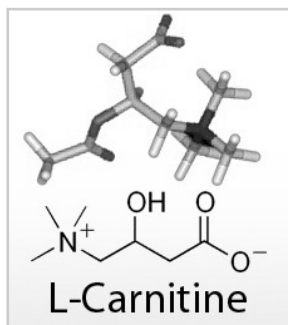
엘카르니틴 성분 확인하세요

종합영양제가 진화하고 있다. 먹을거리가 다양하지 않던 예전에는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두루 함유한 종합영양제가 인기였다. 그러나 식생활이 풍요로워진 요즘은 부족한 온갖 영양소를 무조건 공급하기보다, 대사증후군 개선·노화방지·만성질환 예방 등 특정한 건강 효과에 초점을 맞춘 종합영양제가 부각된다. 현재 시판 중인 '기능성 종합영양제' 중 대표적인 제품의 특징을 각 제조회사의 설명으로 알아봤다.

종합영양제 고르는 요령

▲ 종합영양제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가장 맞는 제품을 골라서 복용할 수 있다. 노화방지, 대사증후군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나와 있다.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spphpto@chosun.com



◆노화방지·항산화효과

녹십자의 큐엔타민 골드는 피부 노화 방지와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에너지원 생성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코엔자임 Q10과 13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다. 일약약품의 비타알부도 노화방지를 돕는 코엔자임 Q10을 함유한다. 방사능 피해를 막아주는 요오드화칼륨도 들어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파마톤은 20여종의 비타민과 인삼 추출물인 G115 성분이 있어 장·노년층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에스더포물러의 울트라 화이트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11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 블루베리, 마늘, 브로컬리 등 항산화 기능을 하는 38종의 식물성 영양소도 함유돼 있다.

◆스트레스·만성피로 해소

대웅제약의 임팩타민 파워는 고함량 비타민B군 10여가지와 비타민C가 들어 있어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광동제약의 마이어스콕은 마그네슘, 비타민B군, 비타민D가 주요 성분이다.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원



래 실외에서 햇빛을 받아야 몸 안에 생성되는 비타민D를 강화했다. 일동 제약의 아로나민골드는 활성비타민B군과 비타민 C·E를 함유해 육체 피로, 눈의 피로, 신경통 등을 감소시켜 준다. 아로나민씨플러스와 아로나민아이는 각각 피부노화 방지와 시력감퇴 개선에 특화한 제품이다. 종근당의 인코라민 3종시리즈도 활성형 비타민B군, 비타민A·C·E, 셀레늄 등을 복합 처방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인코라민큐텐업과 인코라민조인업은 각각 남성과 여성에 좋은 성분을 강화한 제품이다. 화이자의 센트룸에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C·E 등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과 면역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좋다. 유한양행 빼꼼씨는 신경통·관절통·구내염 등의 질병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C 복합제이다.

◆대사증후군 예방·개선

다림바이오텍의 메타볼은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개선을 돕는다. 메타볼의 주성분 중 하나인 엘카르니틴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산 연소를 촉진하며,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준다. 이 외에도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A와 C,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아연, 크롬, 셀레늄 등이 두루 들어 있다.



◆어린이 성장·발육

동아제약의 미니막스는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강화한 제품이다. 녹십자의 티라노 골드는 홍삼, 작약, 황기 등을 함유한 양·한방 복합 어린이 종합 영양제이다. 세노비스의 어린이용 멀티비타민 키즈멀티는 3~14세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 B·C·D·E 등 10가지 비타민과 칼슘, 망간, 철, 구리, 아연 등 5가지 미네랄을 한 알에 담았다.



세금 감사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 줄
회계사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회계사의 선택은
**사업의 번영과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각종 절세 방안을 통해
최대한의 **세금 절감**을
원하십니까?

YSONG & ASSOCIATES, LLC **송영** 공인회계사 C.P.A. M.S.T



■ 공인회계사 **송영** ■

Drexel 대학 세법 석사 졸업 (MST)
회계 업무 및 회계 사무실 manager 경력 15년
(CBIZ Accounting, Tax & Advisory 등)

세금 보고 및 세무 감사 대행

- | | |
|--|---|
| ☒ 회계 감사 Service | ☒ 영리 및 비영리 단체(교회) 설립 |
| ☒ Audit, Review, Compilation | ☒ 각종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
| ☒ 사업체 매매 Tax Planning | ☒ 투자, 연금, 유산 및 노후 대책 Planning |
| ☒ Payroll Service | ☒ 비즈니스 경영 전략 Consulting |



TEL: 610-449-8824 CELL: 610-420-6150
8908 West Chester Pike, Upper Darby, PA 19082
E-mail: youngsongcpa@aol.com Fax: 610-449-7633



모기야 가라~ 올여름 모기퇴치법 총공개!

▲여름철 후텁지근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모기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모기는 체온·습도·냄새에 민감해 대사기능이 활발한 아이, 월경 등으로 호르몬 분비가 있는 여성, 건강한 사람의 피를 좋아한다. 특히 여름 모기는 후각을 이용해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땀 냄새를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다. 생활 속 모기 퇴치법을 소개한다.



향수·로션 등 향이 강한 제품은 금물

모기는 냄새에 민감하게 작용해 향수나 스킨, 로션 등 향이 강한 제품은 모기를 유혹하기 쉽다. 여름에는 가급적 사용을 줄이는 게 좋다. 또한 모기는 땀 냄새, 아미노산 냄새 등 몸에서 나는 냄새도 좋아한다. 땀 분비가 많은 여름에는 땀 냄새를 비롯해 발 냄새 등이 심해진다. 자기 전에 가벼운 샤워를 해 발 냄새 및 땀 냄새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다.

노란색, 흰색 등 밝은 색상의 옷이 좋아

모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그렇기에 주로 밤에 활동하며 밝은 불빛을 찾아 날아온다. 밤에는 되도록 창문을 열지 않고, 부득이하게 열어들 경우 방충망을 꼭 닫아둬야 한다. 2중 방충망을 쓰면 더욱 효과적이다. 아기가 있는 경우, 모기장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노란색, 흰색 등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반면 검정·파랑·빨강 등의 진하고 어두운 색상은 피하도록 하자.

실내의 고인 물 제거...꽃병의 물은 자주 갈아줘야

살충제를 뿌릴 경우 집안 구석구석 뿌리는 게 좋다. 옷이나 천장, 가구 뒤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모기 유충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기 유충은 고인 물에서 잘 서식한다. 싱크대나 화장실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닦고 청소하자. 만일 실내에 꽃병이 있다면 자주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실내에 라벤더, 아래향, 구문초, 타임, 제라늄 등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을 놓아두거나 계피 가루를 두면 모기 퇴치에 도움이 된다.

모기 물린 곳, 얼음찜질 도움 돼

한편,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바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일반 세균이 많아 이차 감염에 의해 피부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모기 물린 곳에 물파스를 바르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사라지며,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다. 또 모기를 물린 뒤 긁다가 상처가 생기면 알칼리성용액이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를 발라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것이 좋다.



제 11 대 집행부 명단

회 장	한 용 웅	Delaware
부회장(서부)	배 윤 향	Califomia
부회장(중부)	김 세 기	Chicago
부회장(동북부)	이 창 희	Philadelphia
부회장(동남부)	차 명 학	Washington,DC
부회장(Canada)	김 영 필	Canada

이 사

이사장	허 성 칠	NewYork
부 이사장	한 영 웅	Harrisburg
부 이사장	복 종 한	Canada
부 이사장	케빈 최	Arizona
부이사장	나 기 환	Georgia

본부 임원

총무 부장	유 인 현	Philadelphia
섭외 부장	최 명 호	Georgia

본부 감사

감 사	이 승 수	Philadelphia
감 사	홍 진 섭	Washington,DC

고 문

고 문	김 기 옥	Washington,DC
고 문	김 양 일	Los Angeles
고 문	전 기 풍	Philadelphia
고 문	김 치 현	Los Angeles
고 문	구 군 서	New York
고 문	김 주 한	Oregon
고 문	김 현 주	Maryland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Inc

송영공인회계사

Rice O2 캠페인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Always refreshing.
Always delicious.*

Always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